

광주 미래차 산업, 기반 구축·신사업 선점 '양 날개' 편다

빛그린산단 '전장부품 지원 플랫폼' 2년차...기업 지원 본격화 '인지부품' 등 국비 공모 사업 도전장...미래 먹거리 외연 확장 2030년까지 완성차~전장부품~재제조 미래차 생태계 완성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현재 진행 중인 핵심 부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부품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고, 재제조(Remufacturing)와 인지부품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를 선점해 미래차 산업의 영토를 획기적으로 넓히겠다는 '양동작전'을 구제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미래차 전환의 핵심 거점인 빛그린국가산단 내에 '미래차 고효율 전장 핵심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화 한다.

지난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35억원(국비 99억원, 시비 136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전기차 등 미래차 시장의 핵심 키워드인 고전압, 고효율, 고성능화 추세에 맞춰 지역 부품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관 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함께 7227㎡ 부지에 3250㎡ 규모의 개발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갖추기 힘든 8종의 첨단 성능 검증 장비를 구축해 공동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사업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인프라 확충과 기업 지원이 본격화돼 올랐다.

시는 전력효율 측정기, 솔더링 접합 성능 평가 장비, 다축 진동시험기 등 핵심 장비 3종을 우선 도입해 구축하고, 수혜 기업을 모집해 시험 평가 및 공정 분석 등 36건의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 중심인 지역 부품 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이처럼 탄탄히 다져진 하드웨어 기반 위에 새로운 소프트웨어(신산업)를 얹기 위해 올해 상반기 대규모 정부 공모 사업 수주에 총력을 펼친다. 가장 눈독을 들이는 분야는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탄소중립 실현과 내연기관차 감축 흐름 속에 사용 후 부품을 회수해 신품 수준으로 복원하는 '재제조'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남구 에너지밸리 일반산단에 총 450억원(국비 99억원, 지방비 80억원, 민자 271억원)을 투입해 재제조 제품의 성능 평가 장비와 품질 인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품 수급부터 재제조, 유통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미 지난해 이탈리아의 선진 재제조 기업인 스텔란티스를 벤치마킹하고 국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친 시는 다음달께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반기 최종 선정을 노린다.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인지부품 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안전 시험 지원 기반 구축' 사업도 핵심 공략 대상이다. 라이다(LiDAR), 레이더, 카메라 등 인지부품은 자율주행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이지만, 국내에는 기능 안전성을 전문적으로 시험·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총 207억원(국비 99억원, 시비 108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의 인지부품 기능안전 시험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난해 국회와 기재부를 설득해 2026년도 신규 국비 24억원을 반영하는 데 성공하며 사업 추진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이 두 가지 신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경우, 광주는 '빛그린산단(완성차·부품)-진곡산단(부품)-도심첨단산단(전장·인지부품)-에너지밸리(재제조)'로 이어지는 미래차 전주기 산업 벨트를 완성하게 된다. 단순한 부품 생산을 넘어 R&D(연구개발), 실증, 인증, 재제조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미래차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내년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광주 도심 운전대 놓는 일상 성큼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자율주행 시범사업 연내 착수

인공지능(AI) 기술이 교통과 도시 전반에 스며들면서 광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과 이동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광주 도심 도로를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완전자율주행차가 누비고,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이 도입되는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모빌리티 생태계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이 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라 광주시는 2026년부터 '자율주행 실증도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시범도시에는 단일 도시에 2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투입되어 실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광주에는 자율주행 데이터센터와 첨단 모빌리티 관제센터, 연구지원 시설 등을 갖춘 'AI 모빌리티 허브'가 들어서며, 실제 거주하며 기술을 실증하는 'AI 리빙랩' 형태의 미니 신도시도 조성된다. 2027년에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일상에 상용화될 예정인 것이다. 이어 2028년에는 도심항공교통 서비스가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비행에 나서며 고질적인 도심 교통 체증 현상을 해소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로드맵은 2022년 9월 첫 밑그림을 그린 이후 두 번째로 제시된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도심 곳곳에서 무분별한 주차와 안전사고로 갈등 현상을 빚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는 올해 법 제정을 통해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교통서비스도 고도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광주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는 사전기획과 기본구상 연구를 거쳐 2027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8년 부지 공사에 착공해 2032년 1단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유망한 AI·모빌리티 앵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미래 유니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과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위험 감지 알림 대상을 2027년 20만대까지 확대하고, 이달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2028년부터는 고효율 등 개발자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응급의료와 재난 대응을 위한 도심항공교통(UAM) 공공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드론 분야에서도 소방·농업 등 5대 분야 국산 기체 개발을 2029년까지 완료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 관람을 마친 뒤 외국인 관람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후 최고치'...민주 45%·국힘 17%

NBS 여론조사...TK 민주당 지지율 28%로 국민의힘과 동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7%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4%포인트(p) 오른 67%로 집계됐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부정 평가 응답은 25%로, 지난 조사보다 5%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가장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평가 비율이 56%에 달했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17%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4%p 올랐고, 국민의힘은 5%p 하락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된 NB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이번 지지율은 지난해 8월 1주 차의 1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와 3%를 기록했고, 진보당 지지율은 1%였다. 민주당은 전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

질렀고, 지역별로는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TK의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같은 28%를 기록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3%,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경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3%에 그쳤으나,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2%에 달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